

성령과 함께하는 삶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요한 20, 19-23)

오늘은 전례력으로 성령강림대축일이며 교회의 창립기념일이고 부활시기를 마무리하는 날이다. ‘성령’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은 바람, 숨, 열, 뉘, 불길, 기운, 힘, 에너지 등이 있는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는 하느님 이심을 우리는 고백한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화와 파견의 인사를 하시며 성령을 건네신다. 숨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생명 곧 사랑을 전달한다는 것이고 그 전달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가능케 한다. 용서는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고 그 공동체가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화해의 성사를 통해서 용서받은, 자유롭고 새로운 인간성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것은 내적인 실존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부활을 뜻한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큰 사건을 목격하는데 오순절에 사도들 속에 일어난 돌발적인 변화이다. 죽음이 두려워 숨어 지내던 제자들. 스승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실의에 빠졌던 그들이 목숨을 내던지며 복음을 증거한 그 엄청난 힘의 원천은 다름 아닌 성령이셨다. 성령 체험이 이전의 자신을 뛰어넘어 죽음까지 불사하고 소신과 애정을 가지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만든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될 때 모든 것이 가능함을 여기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올바르게 참된 삶으로 이끌고, 사랑으로 서로 돕고 성장케 하며, 세상과 사람의 모습을 하느님의 구원의지에 따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재창조한다. 근원적인 변화

의 원리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하나의 신앙과 희망과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이러한 일치된 행복은 결국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한다.(1코린 12,3) 성령께서 아니 계신 우리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냐시오 드 라타궤이에 대주교님의 말대로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하느님은 멀리만 계시고, 그리스도는 과거에만 머무실 것이며 복음은 죽은 문자에 불과할 것이고 교회란 한낱 조직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권위란 한낱 지배하는 것일 뿐이고 선교란 선전 광고에 불과하며 전례란 회상일 뿐이고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노예들의 윤리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기 계시고
복음은 찬란한 생명력을 내뿜고
교회는 성삼위(聖三位)와의 통교를 의미하고
권위는 해방자의 섬김이 되며
선교는 성령강림의 축제가,
전례는 기념이자 왕국에 미리 참여함이 되고
인간의 행위는 하느님으로 가득 차리라.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나를 통해 큰일을 하시는 성령을 맞아들여야 하겠다. 오늘 성령강림 대축일을 맞아 잠자고 있는 우리의 의식과 뜻뜻미지근한 우리 믿음을 성령의 불길 속에 맡겨 우리 삶의 전부가 그분의 현존이 되도록 하자.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맡껏 악동하시도록 여건을 만들어드리고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새로운 창조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신자가 되자.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이윤하 노르베르토 신부

성령

성서에서 성령에 대하여 사용한 단어는 고유한 형태가 아닌 무정형(無定型)의 단어로써 바람[風] 또는 숨, 입김[氣息]을 뜻하는 Ruah(히브리어), Pneuma(그리스어), Spiritus(라틴어) 등의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① 야훼의 영 : Ruah의 뜻은 바람이다. 바람은 하느님의 창조하시는 기운이요, 하느님의 능력의 도구로서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저항을 분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Ruah는 또 야훼의 입김이며, 만물은 이 입김으로 생명을 받는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간섭은 야훼의 영이 한 일이라고 본다. ② 예수와 성령 : 신약에서 언급한 하느님의 영은 명백히 성부와 성자와 구별되는 성령을 뜻한다. 하느님의 영은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 작용하였고, 마리아에게 예수를 수태시키셨고, 마리아와 즈가리야와 시메온에게 예언을 하도록 하셨다. 세례자 요한은 영의 도우심으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식했고,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하였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의 선언이 있었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는 성령의 힘으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셨고, 악령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풀어주셨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는 당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을 제자들에게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당신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는 성령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박해시에는 물론이고 세속과의 일상적 투쟁 속에서도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생애를 통하여 성부를 증거하신 것처럼 성령은 제자들에게 예수를 증언할 것이며, 제자들도 예수를 증언할 것이다. ③ 성령과 초대 교회 : 초대 교회의 모습을 증언하는 사도행전은 성령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임재(臨在, assistentia)와 역사하심이 넘쳐흐르고 있다. 성령의 강림을 받은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 용감히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사도들이 성령께 받은 은총 중에서도 복음선포

를 위한 열성과 용기는 뛰어난 것이었다. 그들은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시리아, 소아시아, 그리스 반도, 로마에 이르기까지 항상 성령의 인도로 전도의 발길을 멈추지 아니했고, 마침내 순교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성령은 초대 교회 신자들에게 뜨거운 형제적 사랑을 부어주시어 그들을 일치시켰다. 재산을 공유할 정도로 서로 도왔으며 기도와 애찬과 찬미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사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애를 탄복하였다.

성령의 칠은

성령은 신덕, 망덕, 애덕을 완성하는 데 유익한 도움을 특히 견진성사를 통하여 주신다. 그 도움을 일곱 가지 은사로 분류한다. 인간의 지성에 관계가 깊은 슬기(sapientia), 지각(intellectus), 의견(consilium), 지식(scientia)의 선물과, 인간의 의지에 관계가 깊은 용기(fortitudo), 효경(pietas), 두려움(timor)의 선물로 이를 성령의 칠은(七恩)이라 한다.

한국가톨릭대사전 발췌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 정 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본당소식

◎ 해밀턴 교구 사제피정

일시 : 6월 1일(월) ~ 6월 5일(금)

사제 피정 기간에 평일미사 없습니다. 신청하신 미사지향은 피정 때 봉헌합니다. 본당 신부님께서 사제 피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오늘 미사 후에 교육관에서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 6월 안내 담당은 브랜포드구역입니다.

- ▶ 7월 : 키치너구역
- ▶ 8월 : 워털루 4구역
- ▶ 9월 : 워터루 1 구역
- ▶ 10월 : 워털루 2구역
- ▶ 11월 : 청소년부
- ▶ 12월 : 사목위원

◎ 성가대 단원모집

▶ 단원 모집: 성음악에 관심이 있는 교우들을 초대합니다. 남녀 교우와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성가연습 : 매주 목요일 8PM 교육관
매주일 4 PM 대성전

◎ 바뇌 성모의 기도회 안내

6월 5일 (금) / 6월 19일(금) 8:30 PM

◎ 성모회 월례 모임 안내

▶ 6월 4일 (목) 교육관 7 PM

◎ 로고스회(성경모임)안내

6월 10일 (수) / 6월 12일(금) 미사 후

◎ 성시간 안내

6월 12일(금) 미사 중

◎ 후보 및 교우주소록 광고 접수합니다.

광고 접수문의 및 관리자 : 사목회 총무
한택중 막시모 ☎ 519 883 8488 Ext 1

◎ 예비자 교리 공부 안내

6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예비자반 모집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포스터가 준비되어있으니 많이 가져가셔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세요.

문의 : 박재영 바오로 ☎ 519 747 4981

◎ 교육관 관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 키 치 너 구역 : 5월
- ▶ 캠브리지 구역 : 6월
- ▶ 브랜포드 구역 : 7월
- ▶ 워털루 1구역 : 8월
- ▶ 워털루 2구역 : 9월
- ▶ 워털루 3구역 : 10월
- ▶ 워털루 4구역 : 11월

봉사는 1달에 2회이고, 봉사 요일은 각 구역장이 추후 공지합니다.

◎ 온타리오주 한인 8개 본당 친선 골프대회

일시 : 6월 30일(화) 12:30 PM

장소 : Carlisle GC

■ 본당신부 단상(斷想)

피정은 영성생활에 필요한 쇄신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묵상과 성찰, 기도를 하는 종교적 수련입니다. 교회법으로 성직자들은 교구에서 실시하는 피정에 반드시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참가하는 피정이니만큼 스폰지처럼 잘 받아들여 여러분께 그리스도의 은총을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9년 5월 24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695.00
교 무 금 : \$1550 183:50 184:50 188:50 194:20 195:20 196:200 199:60 201:20 202:50 203:10 204:40 205:300 206:20 207:40 214:50 216:20 219:100 224:100 226:300
감 사 금 : \$ 20.00 188
성전건립 : \$
소 성 당 : \$
합 계 : \$ 2265.00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 lucasmuse@korea.com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 519 894 3533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009-24호

2009. 5. 31.

성령강령대축일 미사전례

해 설 박명옥 차주 해설 이정숙

성 가

입 당 (142) 오소서 성령이여
봉 헌 (143) 진리의 성령
성 체 (496)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퇴 장 (249)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

화 답 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부속가 (성령송가) 매일미사 참조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
을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영성체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독	서
5월 31일 노동원	노성은
6월 7일 박용대	박명옥
6월 14일 이 민	이활란

봉	헌
5월 31일 윤명원	윤명희
6월 7일 노동원	노성은
6월 14일 박용대	박명옥

복	사
5월 31일 최예슬	이수민
6월 7일 김근영	김건우
6월 14일 박규환	이현재

친	교
5월 31일 백함팀	6월 7일 신비팀
6월 14일 환희팀	6월 21일 영광팀